

수대극회
Since 1921

제 8 6 회
정 기 공 연
창단 50주년 기념

50th

2015
in Seoul

작 Juan Mayorga / 역 김재건

연출 김동환
조연출 고민정
기획 이현호
부기획 김나연



다시 거기에 있는 거 알잖아요

맨 끝줄로 소년

장소 |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1층 블루큐브 극장

일시 | 5월 21일(목) 7PM / 22일(금) 7PM / 23일(토) 2PM, 7PM

주관  숭실대학교

후원  동아일보

허리로 만네 가족



라파네 가족





극회장

11' 김영근

2015년 봄이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밤은 춥습니다.

저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춥건 덥건 극회 연출, 조연출, 기획, 부기획, 배우, 스태프 모두들 공연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고 노력한만큼의 보람과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연습기간 동안 서로 같이 고생하면서 이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50주년이란 타이틀과 함께하는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열정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뒤돌아볼 새도 없이 준비한 공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 끝자락에 숭대극회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번 봄 끝자락은 관객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세!



연출

10' 김동환

극회 프로그램북에 이게 정말 몇번째 쓰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연극을 준비하던 도중 전부 날아가 버리고, 결국 의미 없는 변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변에는 변만 남아 있다고 변명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연극'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 사람을 생각하게 되네요. 아 진부해..

그 계기가 되었던 숭대극회와 '극회사람'이라 불리는 극회인들과 그 중에서도 2010년도를 함께 보낸 선배님들.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찾아와서 걱정해주는 동기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후배들만 남아 있네요. 가족은.. 아 잘 모르겠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사람으로 축약되는 말들입니다.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극처럼 모호한 결말이 예상되는 제 남은 여생도 지켜보시렵니까? 그렇다면 제 대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 공연을 보소.. 아 보러 오셨구나.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회장

11' 장영주

안녕하십니까 11학번 장영주입니다

올해, 극회 50주년에 졸업을 앞두고 기회가 주어져 부회장으로, 또 캐스트로 연극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준비한 입장으로는 여느때와 같이 아쉬움이 남겠지만 모든 스텝, 연출, 기획부, 캐스트들이 훌린 땀만큼 연극을 보러와주신 여러분들이 힘껏 즐기고,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출

14' 고민정

숭대극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희곡에 대해 배우고 있어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역시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웠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이외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캐스트들 스태프들과 함께 맨 끝줄 소년을 준비하면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준비하면서 모두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조연출 시켜주신 연출님께 감사하고 맨 끝줄 소년이 무대에서 빛을 바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기획 / 부기획

10' 임현호 12' 김나연



먼저 이글을 읽어주시는 관객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봄 정기공연의 기획으로써 많이 부족하지만, 구성원 모두의 열정으로서 저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획, 부기획으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승대극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연을 위해 힘쓴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같이 후회 없이 공연을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소개

후안 마요르가는 1965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현재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극은 즐거움과 감동 외에도, 관객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원가를 던져 주어야 한다고 작가는 생각한다. 관객의 상상력이나 감각에 도전하면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비판하며 또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 연극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마요르가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극 언어가 수학처럼 정확하기를 추구하고, “연극은 철학처럼 갈등에서 출발하며 철학자들이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관객에게 던질 수 있다. 위대한 연극, 가장 좋은 연극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철학하는 연극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진정한 연극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회피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작품은 철자법이 엉망이었던 한 학생의 작문과 그가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보냈던 많은 순간들이 이 작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맨 끝줄 소년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지나치게 많이 관망해 온 사람들, 지금 관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맨 끝줄을 택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즐거움, 실제 삶과 상상 속 삶을 혼돈하는 위험, 그리고 상상하는 행위 자체를 무대에 올린 작품이라고 한다.

이런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탈린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천국으로 가는 길〉, 〈눈 송이의 유언〉, 〈하멜린〉, 〈다윈의 거북이〉, 〈영원한 평화〉, 〈갈라진 혀〉 등이 있다.

역자소개

김재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엔세 대학교에서 스페인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한국외대, 이화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후안 마요르가의 〈다윈의 거북이〉, 〈영원한 평화〉, 〈하멜린〉, 〈천국으로 가는 길〉을 번역했다.

시놉시스

학교에서 좌절감에 빠져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루한 삶을 사는 소설가이자 문학교사인 헤르만. 학생들에게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쓰라는 숙제를 채점하는데 모두 성의 없고 의미 없는 내용뿐이다.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항상 맨 끝줄에 앉는 소년 클라우디오의 숙제를 보고 헤르만은 그에게 빠져든다. 마치 한 편의 소설같은 클라우디오의 숙제에는 같은 반 친구인 라파의 가족에 대한 수상하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더 발전시키길 원하는 헤르만은 클라우디오의 재능에 대한 부러움으로 그에게 계속 개인 지도를 해 가며 소설을 완성시켜나간다. 클라우디오는 헤르만이 요구한대로 반전 있는 소설을 쓰기 위하여 비윤리적인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헤르만은 이런 클라우디오를 멈추게 해야 할지 갈등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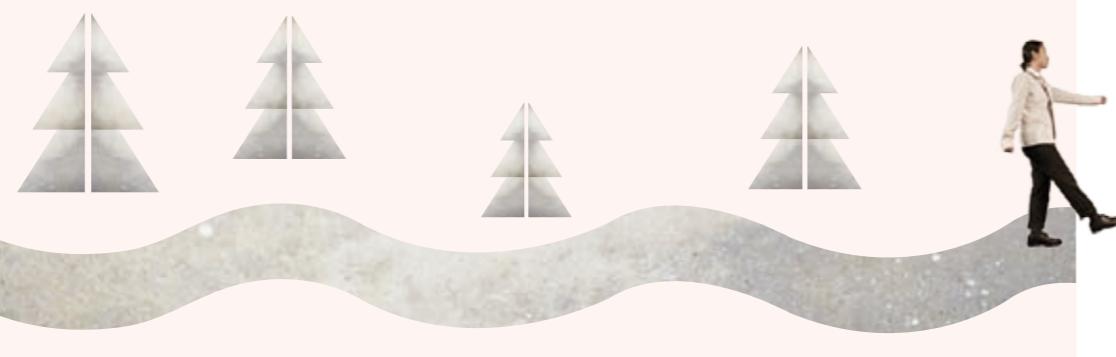
연출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다. ‘나’이기도 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외로움과 타인을 향한 부러움이 크게 다가왔다.

극 중의 클라우디오의 글과 헤르만과의 대화로 풀어가는 현실과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쓰여졌다. 이를 바탕으로 극의 초반에는 현실과 클라우디오의 글의 경계를 비교적 흐릿하게, 하지만 절정으로 갈수록 분리시키며 더욱 더 모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

장면을 끊김 없이 연결하기 위하여 배우들의 대사 속도는 빠르게 했다. 극중의 시공간의 경계는 조명으로 무대위의 장소를 구분짓게 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비추어지는 장소, 즉 현실적인 부분은 보기와 다르지 않음을 표현했다. 이는 클라우디오의 글쓰기 방식에서 차용했다.



캐릭터 소개

헤르만

50대 문학 교사인 헤르만은 자신 반 학생들에게 주말 작문 숙제를 내주는 과정에서 글에 재능에 있는 학생인 클라우디오를 발견하게 된다. 클라우디오의 위험하고도 색다른 글에 감명받은 헤르만은 계속해서 그의 글에 집착하고 작문을 부추긴다. 이 글은 결국 헤르만 자신도 견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

후아나

후아나는 문학 선생님인 헤르만의 부인이다.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으로 개성이 있으면서도 귀여운 50대이다. 불임이라서 아이는 없다. 미노타우르스의 미로란 갤러리에서 일하는데 작품을 팔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후아나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쓰는 클라우디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클라우디오

고등학생. 아버지와 둘이서만 사는 클라우디오는 영악하지만 진심으로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모른다. 반 친구들과도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클라우디오는 같은 반 라파의 가정에 흥미를 느끼고 접근해 라파의 엄마 에스테르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쓰는 작문에 써내려간다.

아버지 라파

40대 중년 남성으로 네 명의 가족의 가장이다. 회사에 성실히 다니며 인정 받고 있지만 자신의 직장이나 생활에 만족하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을 큰 기회라고 여기고 있으며 회사에서 나와 중국과의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들 라파에 애정이 많으며 사이가 돈독하다. 아이에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같이 매주 농구를 하려간다.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지만 부인 에스테르와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뒤로한 채 살아온 여자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이론 결론으로 졸업하진 못했다.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는 주로 집에서 하루하루 조용하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희망과 현실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우울함과 달랠 수 없는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메말라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다.

라파엘 아르톨라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친화력이 강하다. 다소 파파보이? 같은 면이 있으며 살짝 찌질한 면도 있다. 그래도 자기의 생각은 잘 드러낸다. 클라우디오의 친구로 수학엔 젠병이지만 철학엔 관심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아버지와 많이 친하며 형성된 유대감이 아주 끈끈하다. 농구를 아주 좋아하며 아버지와 같이 하기도 하고 농구경기를 보는 것을 즐긴다.



히로인 역

15' 신동욱

나를 알게해준 곳 제가 죄송해서ㅠㅠ 사랑해요 맨 끝줄 소년 팀

후아나 역

12' 김승현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맨 끝줄 소년 파이팅



아버지 라파 역

11' 최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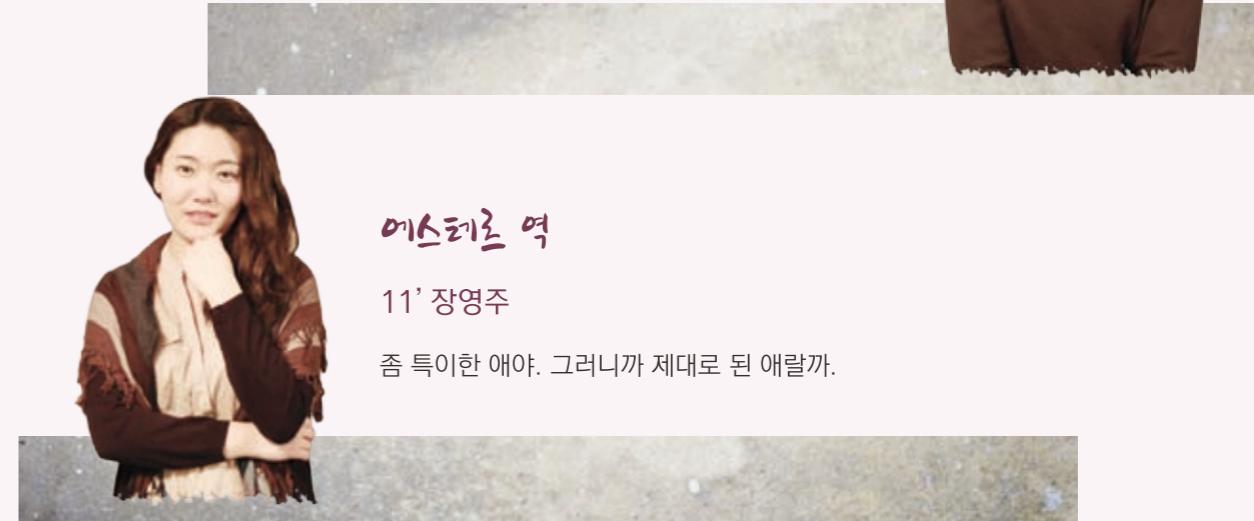
Easy come Easy go!



에스티로 역

11' 장영주

좀 특이한 애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랄까.



클라우디오 역

15' 김소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해내거든요

라파의 아르툠라 역

11' 정수현

연습하면서 드는 생각 “진짜 미쳤다 미쳤어”
힘들고 지치지만 다같이 따라와준 맨 끝줄 소년 팀 감사해요!



무대팀

11' 박종빈 15' 박주호



기획팀

14' 박하연 14' 편무승 14' 김서희 14' 최예솔



음향팀

15' 이주희 15' 오대준



조명팀

15' 설혜리 14' 심현우



소품팀

15' 장지원



포스터 & 팜플렛

14' 신수영 14' 김상현

도움을 주신 분들

06' 김윤배 서동현
07' 김진욱
08' 홍석현
09' 김현우 이경문
10' 김지영 오광규 이홍주
12' 김연교 임한성 김승범
14' 김서우



정기 공연 연보

- 1921년 6월 13일 연희소인극 <쥘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 1923년 7월 7일, 21일 전원극 <우의리행진> <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 엠엔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연극> 고학생축원회 주관
- 1965년 11월 제1회 <궁금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28일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10일 / 10월 28~29일 제3회 <자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연출
- 1969년 10월 28~29일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연출
- 1970년 5월 15일 제5회 <성자와의 삶을>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제 연출
- 1970년 10월 28~29일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카트 작, 김양기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종화 연출
- 제7회 <건널목 삽화> 운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호 연출
- 제7회 <담배해독에 대하여> 안준 채우 작, 한영재 연출
- 제7회 <포리우터스> 작, 유근배 연출
-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카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4~5일, 11일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연출
- 1972년 5월 25~27일 제9회 <생일 파티> 헤롤드 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21~23일 제10회 <미시시피의 결혼> F.튀렌마트 작, 고봉인 연출
- 1973년 10월 25~27일 제11회 <방> h.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25~27일 제12회 <정의의 사람들> a.까워 작, 정종화 연출
- 1975년 6월 9~10일, 12~13일 제13회 <싸울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기획, 안충순 연출
- 1975년 10월 29~31일 제14회 <비더만과 방화범>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충순 연출
- 1976년 6월 1~3일 제15회 <인터넷> 장 클로드 반 이태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1976년 10월 25~28일 제16회 <뱀> 장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15~18일 제17회 <EQUUS> 피터쉐퍼 작, 백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10~13일 제18회 <EQUUS> 피터쉐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5~6일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1978년 10월 24일 제20회 <EQUUS> 피터쉐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민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18~19일 제21회 <한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29일, 10월 2일 제22회 <초본> 오태석 작, 이정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5~6일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락 작,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 1981년 6월 12~13일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 튀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1981년 11월 12~14일 제25회 <달맞이 꽃> 김병중 작, 전석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12~13일 제26회 <카리큘라> A.까워 작, 음태웅 기획, 지숙 연출
- 1982년 10월 7~8일 제27회 <쉐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20~21일 제28회 <미시시피의 결혼> F.튀렌마트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7~8일 제29회 <트레버> 존 보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열 연출
- 1984년 5월 24~26일 제30회 <도가니> A.밀러, 이종규 · 엄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11~13일 제31회 <변전소> 존 스톤클린거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9~11일 제32회 <빈민굴> 악심 고르끼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11월 21일, 23일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4~6일 제34회 <EQUUS> 피터쉐퍼 작, 하성무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11~13일 제35회 <코뿔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1987년 6월 3~5일 제36회 <흔 여름 밤의 꿈> 세이스피어 작, 권형진 · 이준석 기획, 오정열 연출
- 1987년 9월 10~12일 제37회 <오마> A.까워 작, 오정열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2~4일 제38회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작, 이종일 기획, 오정열 연출
- 1988년 10월 6~8일 제39회 <내나니? 못나나!>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25~27일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호 연출
- 1989년 10월 10일 / 11월 17~18일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오정열 기획, 이반 연출
- 1990년 5월 24~26일 제42회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30~9월 1일 제43회 <한시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5회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19~21일 제46회 <우린 나빌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화 · 정현웅 기획, 총은영 연출
- 1992년 9월 17~19일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황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8회 <세일죽음즈먼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9회 <타나> 김윤상 작, 소장호 · 이명성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5월 26~28일 제50회 <굿 닉터> 닐 사이먼 작, 정석웅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29~10월 1일 제51회 <안티코니>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5년 5월 25~27일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옥 기획, 류성환 연출
- 1995년 11월 26~28일 제53회 <나의라임온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1996년 3월 7~9일 제54회 <자살> 김현목 작, 한석운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5~7일 제55회 <작당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충희 연출
- 1997년 3월 13~15일 제56회 <우리 음네> 손준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8~9일 / 16일 / 17일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1998년 3월 18~20일 제58회 <사람은 둘이다>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26~28일 제59회 <풀고기의죽제> 유미리 작, 윤정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11~13일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2~4일 제61회 <세상 낙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4~6일 제62회 <이름다운 시간> 장진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0년 8월 31~9월 1~2일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극 연출
- 2001년 3월 29~31일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육재 기획, 서정훈 연출
- 2001년 9월 6~8일 제65회 <비리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13~15일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영길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3월 6~8일 제67회 <옥수동에서면 암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미나 기획, 윤정한 연출
- 2003년 9월 4~6일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카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3~5일 제69회 <평화씨>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혜정 연출
- 2005년 3월 2~4일 제70회 <마술가게>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육재 연출

정기 공연 연보

- 2005년 10월 6~8일 제71회 <히바쿠사> 훌가이 작, 정한길 기획, 한재진 연출
- 2006년 6월 1~3일 제72회 <정춘예찬> 박근영 작, 이고운 기획, 이육재 연출
- 2006년 9월 21~23일 제73회 <사랑에 관한 일곱 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5월 31~6월 1~2일 제74회 <굿 닉터> 닐 사이먼 작, 신영준 기획, 한재진 연출
- 2007년 9월 6~8일 제75회 <개교 110주년동문합동>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이준석 · 권형진 · 양현준 · 이명성 · 윤대현 기획, 박경근 연출
- 2008년 11월 27~29일 제76회 <Open Couple> 다리오 포 작, 이보라 기획, 김명희 연출
- 2010년 11월 18~20일 제77회 <일요일의 불청객> 이근삼 작, 김현우 기획, 서동현 연출
- 2011년 5월 26~27일 제78회 <같이, 미치다> 닐 사이먼, 서현철, 안톤 체홀 작, 김상현 기획, 김진욱 연출
- 2011년 11월 24~26일 제79회 <신축 학생회관 개관 기념공연> <술집, 돌아오지 않는 힘> 위성신 작, 이준석 · 소장호 · 이명호 · 이현종 · 윤창교 기획, 위성신 연출
- 2012년 5월 31~6월 2일 제80회 <카드에 없는 카드> 이경문 작, 임윤진 · 조윤재 기획, 이경문 연출
- 2012년 5월 31~6월 2일 제81회 <소팔로비자 유령극단> 류보미르 시모비치 작, 최한나 · 윤예슬 기획, 정성원 연출
- 2013년 5월 23~25일 제82회 <운전배우7> 풀라 보글 작, 윤미나 · 김동욱 · 고세이 기획, 정성원 연출
- 2014년 5월 29~31일 제83회 <낙오자를 위하여> 김현목 작, 오광규 · 김서우 기획, 김승현 연출
- 2014년 11월 13~15일 제85회 <체밀린, 자비를 입어버리다> 서현철 작, 김연교 기획, 박희진 연출
- 2015년 5월 21~23일 제86회 <맨 끝을 소년> Juan Mayorga 작, 임현호 기획, 김동환 연출

신입생 환영 공연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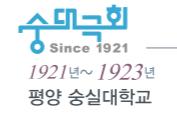
- 1975년 3월 10~12일 제1회 <악마와 토> W. 에이딩 작, 김홍수 연출
- 1976년 10월 29~31일 제2회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연출
- 1977년 3월 16~18일 제3회 <출발> 윤대상 작, 전경호 기획, 안충순 연출
- 1979년 3월 29~30일 제7회 <식> 이강백 작, 한철 기획, 정자호 연출
- 1981년 3월 30~31일 제5회 <아리아> 카포 E.ST.MILLAY 작, 이영환 기획, 오세한 연출
- 1982년 3월 24~25일 제6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기획, 이용섭 연출
- 1983년 4월 16일 제7회 <블랙 코미디> 블랙 쉐퍼 작, 전희식 기획, 총려석 연출
- 1984년 3월 8~9일 제8회 <개인의 소공간> 호랄드 작, 차세훈 기획, 김인보 연출
- 1985년 7월 20일 제9회 <아리아>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3월 17~19일 제10회 <인형의 집> 헨리 입센 작, 이길영 기획, 김정은 · 위성신 연출
- 1987년 3월 12~14일 제11회 <더러운 손> 스트르트 작, 백운형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3월 24~26일 제12회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기획, 황금실 연출
- 1989년 3월 23~25일 제13회 <흑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까워 작, 흥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90년 3월 8~10일 제14회 <우물중 환자> 보토스트로우 작, 이영민 · 안상준 기획, 빙혜숙 · 백로라 연출
- 1991년 3월 9~11일 제15회 <노크노크> 줄수파이터 작, 정현웅 기획, 이범준 연출
- 1992년 5월 28~30일 제16회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경 기획, 양현준 연출
- 1993년 3월 11~13일 제17회 <메두사> 조지 케이저 작, 소장호 기획, 박경근 연출
- 1994년 3월 10~12일 제18회 <어린왕자> 센렉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총석환 연출
- 1995년 3월 9~11일 제19회 <봄 날> 이강백 작, 양명호 기획, 정석웅 연출
- 1996년 3월 7~9일 제20회 <울어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7년 3월 23~25일 제21회 <로물루스 대제> 뒤텐마크 작, 박정국 기획, 정석웅 연출
- 1998년 6월 5~7일 제22회 <결혼> 이강백 작, 강길호, 류민주 연출
- 1999년 3월 3~5일 제23회 <자매> 라투아니아 작, 홍신태 기획, 권내리 연출
- 2000년 11월 16~18일 제24회 <도덕적 도도> 다리오포 작, 김명진 기획, 강길호 연출
- 2001년 5월 30~6월 1일 제25회 <노부인의 방문> 뒤텐마크 작, 강혜정 기획, 서정우 연출
- 2003년 3월 29~31일 제26회 <택시드리벌> 장진 작, 김종백 기획, 한주영 연출
- 2008년 6월 4~7일 제27회 <한여름밤의 꿈> 세이스피어 작, 박한경 기획, 이원진 연출
- 2009년 3월 28~30일 제28회 <미미의 집> 정다운 작, 정성원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18~20일 제29회 <웃음의 대학> 미타니 코우기 작, 서동현 기획, 정현승 연출

채플 공연 연보

- 1985년 9월 제1회 <예언자와 목수>, 엄세범 기획, 이용섭 연출
- 1986년 10월 제2회 <20세기의 그리스도>, 음태웅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10월 제3회 <공포를 넘어서>, 이영민 기획, 이준석 연출
- 1996년 5월 제4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6년 10월 제5회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명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10월 22~25일 제6회 <칼렌의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육재 연출
- 2008년 9월 28~10월 2일 제7회 <결혼> 이강백 작, 정한선 기획, 김성훈 연출
- 2009년 9월 28~10월 1일 제8회 <헤파이스토스의 춤> 정다운 작, 정한길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10월 25~28일 제9회 <다섯번재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2년 10월 29~11월 7일 제10회 <도덕적 도도> 다리오포 작, 원종진 기획, 오광규 연출

워크샵 공연 연보

- 1991년 10월 7일 <왕> 이준석 작, 남재우 기획, 이준석 연출
- 2010년 6월 5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가출소녀 우주여행기> 김지윤 작, 유병기 기획, 김윤배, 서동현, 김진욱 연출
- 2010년 11월 29일 <서툰 사람들> 장진 작, 최상원 · 박희진 연출
- <에쿠우스> 피터 쉐퍼 작, 김동환 연출



1921년 ~ 1923년
평양 숭실대학교

2015년
승대극회 창단 50주년
서울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창단 공연
<페궁으로 돌아오다> 소설가 황석영 작,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50th
2015
in Seoul

50th
2015
in Seoul

승 대 극 회
창단 50주년



서울 숭실대학교

1965년 11월
창단공연

〈폐궁으로 돌아오다〉
기획. 이반(숭실대 명예교수)
작. 황석영(소설가)
연출. 전진호



평양 숭실대학교

1921년~1923년
연홍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1921년을 역사적
정신계승의 시점으로 둠

